



# 'PHOTO & IMAGING 2009'

4월 9일~12일 개최, 1월 15일까지 조기신청시 할인혜택



제 18회 '2009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PHOTO & IMAGING 2009)' 이 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서울 코엑스 본관 1층 태평양 홀에서 개최된다. 전시주최자 사무소에서는 현재 1차 조기신청에 이어 올해 1월 15일까지 2차 조기신청을 받는다. 조기신청 업체는 참가비 할인뿐 아니라 부스위치 우선 배정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며 중소기업의 경우 약 15%의 추가할인의 혜택이 있다.

[정리/편집부]

18회째를 맞는 '2009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PHOTO & IMAGING 2009)' 이 올해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 본관 1층 태평양 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최대 관람객인 6만 4000여명이 다녀가면서 사진영상 산업에 대한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한 바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카메라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반영하듯 메이저 기업들의 참가가 확정됐으며, 필수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키 위한 사진관련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해 주최자 사무국에서는 해외 유력바이어 모집 및 해외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 전시회는 더욱 바이어 마케팅을 강화시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부대행사로는 미국 최고의 프로사진가협회인 PPA의 직접적인 공개심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Asia Pacific Print Competition 사진공모전을 비롯하여, PPA International Print Competition 최종 입선작들로 구성된 PPA & ASP Loan Collection, Seoul Photo Fair, 온라인 커뮤니티



▶ 지난해 최대 관람객인 6만 4000여명이 다녀가면서 대성황을 이뤘던 전시회장 전경과 내빈들의 모습

사진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최 측은 일본, 중국 그리고 국내에서 초빙한 최고의 사진작가 및 저자들의 세미나와 벤 더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전시 품목은 조명과 스튜디오 세트, 촬영 의상 등 촬영 기자재와 카메라를 비롯한 렌즈, 메모리카드, 외장스토리지, 포토프린터, 전자책자 등 지

난해보다 더욱 진보되고 다양화된 디지털카메라 관련 품목들이 대거 출품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품목에 맞춰 개발된 새로운 액세서리 아이템들도 출품될 예정이다.

각종 사진영상 기술과 신제품 홍보의 장의 역할을 해온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카메라 시장이 DSLR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디카의 약진, 중급형 DSLR 보급 등 점점 치열해지고, 스타급 사진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사진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는 등 사진·영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최측은 내년도 전시회가 2009년 사진영상산업의 가속화와 고급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행사는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코엑스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미국프로사진가협회, SLR CLUB, 대한사진영상신문이 후원한다.

■ 전시회 문의

P&I 2008 사무국 :  
02)6000-1068/8133  
photoshow@coex.co.kr  
www.photoshow.co.kr